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임정미, 김지영*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Effect of the use of social services by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less support.

Lim Jung mi, Kim Ji young*
Ph.D. Can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20년도 제15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변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및 다중 회귀분석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65세 이상 장애 노인 684명을 추출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는 소득보장 서비스, 건강보장 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사회 참여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실천적 개입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장애 노인, 사회서비스 이용,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조절 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effect of the use of social services by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To this end, the 15th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2020 were used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The SPSS WIN 25.0 program was used. The survey subjects extracted 684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ged 65 or older, and the use of welfare services was divided into income Service, health Service, home welfare Service, and social participation Service,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using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had a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social support show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using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se results, the necessity of practical intervention measures and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in social welfare policie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and increase life satisfaction through various social support was suggested.

Key Words : Elderly with disabilities, use of social services,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moderating effects.

*Corresponding Author : Kim Ji young(ji5430@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8,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May 13,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14.9%, 2021년 16.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025년에는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2].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며[3], 빠른 고령화 속도는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장애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2020)가[4] 발표한 장애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49세가 10.4%, 50~64세가 30.3%, 65세 이상 장애인이 48.3%로 장애 노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노인의 증가는 노인문제와 장애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현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고령화 문제 혹은 장애인 문제에 비해 심각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43] 사회적으로 중요시해야 한다. 에릭슨에 의하면 노년기 나이는 통합의 시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만족도를 느끼며 만족도를 느끼지 못할 경우 절망감을 느끼는 시기라 하였다. 최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장애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생활 만족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Neugarten 외[7]는 주위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으로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삶의 만족도를 정의하였고, 이승민[8]의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란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건강과 물리적 요건, 문화, 여가, 사회 참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장애 노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5].

실제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41.4%의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는데[9], 특히 장애 노인은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의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으로 고도화된 산업화 속에 비장애인보다 빠른 퇴직과 실업 등으로 노동력과 경제력이 약화된다[10]. 또한,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건강의 악화와 사회적 지지 기반의 약화로 인해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11]. 이는 곧 빈곤율 증가와 자살률이 증가하게 되고[1,12], 장애노인은 독립성과 자존감이 상실되어[44]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13,14].

삶에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비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거나[42], 장애 노인에 관련하여 심리적 안녕 및 우울감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경제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16,8,17], 장애 유형별 차이에 집중한[18]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김자영[16]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의 조건은 사회적으로 심화 또는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19].

이런 관점에서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을 들 수가 있는데[21], 사회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22].

사회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서비스의 이용과 이용 상태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명일(2019)에 의하면 교육 수준, 건강 상태, 경제적 상태가 사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24].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 전후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서비스를 받은 후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25].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보면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는 장애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이 각각 욕구하는 바와 다를 경우, 고립감, 무력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장애 노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중 경제적 상태를 지원하는 소득보장서비스, 건강상태를 지원하는 건강보장서비스,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지원하는 사회참여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인 재가복지서비스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서비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과 만족도는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서비스의 이용 정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한편,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 타인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조형태를 말하며 이를 통해 보살핌을 받고 있고 사랑과 존중받고 있다 라고 지각하는 것이다[27]. 인간 개인이 환경과 맺는 관계에서 발생하고 접촉이 많으면 강력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28,29]. 그러나, 장애 노인들은 의도적으로 사회관계망을 줄여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거나 회피하며 소극적인 태도와 수동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30].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족 유형의 변화로 인해 가족을 대신할 사회적 지지자원의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다[31]. 특히, 장애 노인은 활동의 제약이나 다양한 어려움을 가족을 통해 도움을 받는데 사회적 지지자원은 가족의 대체 역할로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32].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는 장애 노인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33].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34],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가족 신뢰, 이웃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35]. 특히, 다양한 지지 자원 중 가족의 지지는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36].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사회서비스 이용이라면, 사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조절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조절 변수 분석 효과는 어떤 효과가 어떤 상황 또는 누구에게 발생이 되는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37].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취약계층인 장애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성을 마련하고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효과를 지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장애 노인

장애 노인이란 장애인과 노인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지칭한다. 장애발생 및 원인, 유형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서 일상생활 활동에 제약이 있는 노인을 말하며 이들의 특성이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5].

장애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성 장애노인과 고령화된 장애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인성 장애노인은 노화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를 말하며 생리학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는 유형이다. 한편, 고령화된 장애 노인은 출생이나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노령으로 장기간 있는 것을 말한다[20].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노년기에 진입한 '고령화된 장애인'[46]과 노화로 인해 장애를 얻은 '노인성 장애인'[47]으로 분리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대한 정의를 65세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장애를 가진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란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등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학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Cambell(1976)은 개인에게 있어 현재 생활의 조건과 경험하고 싶어 하는 수준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Young과 Longman(1983)은 삶의 환경 여건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라고 정의하였다.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느낌을 삶의 만족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10].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후 준비와 성공적 노화에 삶의 만족도가 매개효과의 요소를 가진다는 연구[6]와 노년층과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0],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 등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인을 장애 유형별로 분류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만

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20],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이용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노인이 지각하는 건강과 가족의 수입 그리고,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여가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2.3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질병과 노령, 장애, 실업과 사망 등 다양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15]. 특히, 장애 노인은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가진 취약계층으로 다른 어떤 계층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사회서비스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은선 외[15]는 사회서비스를 무료급식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구만서 외[38]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노년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정신 및 신체적인 문제, 욕구충족에 대한 해결문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장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있다. 첫 번째는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가사도움, 간병 및 교육, 의료 등은 지원해 주는 재가서비스가 있다[24].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는 노인 정책에 의해 설계되어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기존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각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중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소득보장서비스, 건강보장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사회참여 서비스를 변수로 정하였다.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이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4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사회적 지지는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란, 집단 및 타인 또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

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용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23].

사회적 지지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크기가 달라지는 조절효과를 보이기도 한다[48,13]. 즉, 장애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장애 노인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자원을 재발견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자원 중 가족지지는 다른 사회적 지지 자원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배우자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변수로 정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것이 사회적 지지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연령대, 장애 정도, 성별, 교육 수준, 혼인상태, 동거 여부, 건강 상태를 통제하였다.

연구가설을 연구모형으로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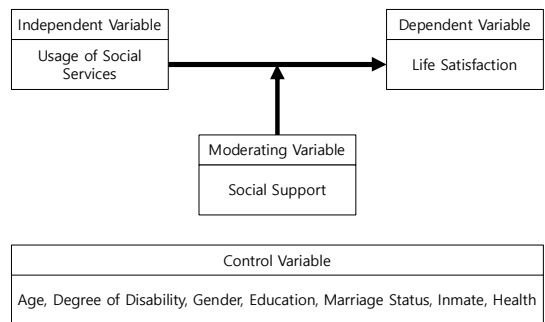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분석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한국 복지 패널 조사자료 중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응답자 중,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3 주요변수

3.3.1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척도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를 정의하기 위해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를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유무 '있다 1점', '없다 2점'을 소득보장서비스, 건강보장서비스, 재가 복지서비스, 사회 참여서비스로 나누어 항목을 추출하였고 응답범주를 이용여부(예=1, 아니오=0)로 더미처리 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0.600이다

3.3.2 삶의 만족도 척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정의하기 위해 건강 만족도와 가족의 수입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31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82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6을 초과할 때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므로(Hair et al., 2006), 본 연구에서 정의한 변수는 신뢰도가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3.3.3 사회적 지지 척도

조절 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기 위해 가족,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3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을 추출하였다. Cronbach's alpha값은 0.822이다

4. 연구 결과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68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는 60대 58명(8.5%), 70대 325명(47.5%), 80대 273명(39.9%), 90대 28명(4.1%)으로 연령의 평균은 78.44세로 나타났고, 장애 정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40명(20.5%),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21명(76.2%), 비등록 장애인(보훈처등록 장애인 포함) 23명(3.4%)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296명(43.3%), 여성 388명(56.7%)으로 나타났고, 교육 수준은 무학 135명(19.7%), 중학교 졸업 이하 447명(65.4%), 고등학교 졸업 81명(11.8%),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18명(2.6%),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 졸업 3명(0.4%)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유배우 388명(56.7%), 사별 249명(36.4%), 이혼 40명(5.8%), 별거 3명(0.4%), 미혼(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4명(0.6%)으로 나타났고, 동거 여부는 같이 살고 있다 683명(99.9%),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1명(0.1%)으로 나타났고, 건강 상태는 아주 건강하다 3명(0.4%), 건강한 편이다 95명(13.9%), 보통이다 229명(33.5%),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17명(46.3%), 건강이 아주 안 좋다 40명(5.8%)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는 없음 6명(0.9%), 있음 678명(99.1%), 소득보장 이용 여부는 없음 119명(17.4%), 있음 565명(82.6%), 건강보장 이용 여부는 없음 23명(3.4%), 있음 661명(96.6%), 재가 복지 이용 여부는 없음 513명(75.0%), 있음 171명(25.0%), 사회참여 이용 여부는 없음 530명(77.5%), 있음 154명(22.5%)으로 나타났다.

4.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연구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2점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변수 중 건강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52점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수입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87점으로 나타났고, 주거 환경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62점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4점으로 나타났고, 직업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1점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46점으로 나타났고, 여가생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9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7점 만점에 5.26점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변수 중 가족생활에 대한 만

족도의 평균은 7점 만점에 5.23점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7점 만점에 5.16점으로 나타났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7점 만점에 5.4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3 미만, 첨도는 절댓값 10 미만이면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Kline, 2005),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Variables	M	SE	Skew	Kurt
	Total	3.22	0.46	-0.34	-0.13
	Health	2.52	0.88	0.18	-0.62
	Family income	2.87	0.81	-0.01	-0.91
Life Satis- faction	Residential environment	3.62	0.69	-1.33	1.48
	Family relationship	3.74	0.63	-1.51	3.39
	Job	3.21	0.72	-0.43	-0.14
	Social relationship	3.46	0.72	-0.95	0.68
	Leisure	3.09	0.75	-0.39	-0.10
	Total	5.26	1.04	-1.29	1.52
Social Support	Family	5.23	1.12	-1.17	1.05
	Spouse	5.16	1.21	-0.94	0.62
	Children	5.40	1.11	-1.55	2.29

4.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r=.490, p<.001$), 사회 참여 서비스 이용 여부($r=.167,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고,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r=-.082, p<.05$),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r=-.154, p<.001$), 건강보장

Table 2. Correlation of Key Variables

	1	2	3	4	5	6	7
1	1						
2	.490***	1					
3	-.082*	.029	1				
4	-.154***	-.066	.205***	1			
5	-.090*	-.017	.504***	.107**	1		
6	-.184***	-.099**	.054	.131***	.014	1	
7	.167***	.112**	.051	.090*	.023	.020	1

* $p<.05$, ** $p<.01$, *** $p<.001$

1: Life satisfaction, 2: Social support, 3: Usage of social services, 4: Income guarantee, 5: Health insurance, 6: Home welfare, 7: Social participation

서비스 이용 여부($r=-.090, p<.05$), 재가 복지 이용 여부($r=-.184,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와는 유의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았지만($p>.05$), 복지서비스 중 사회 참여 서비스 이용 여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고($r=.112, p<.01$),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r=-.099, p<.01$).

4.4 노인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4.4.1 노인가구의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노인가구의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1번 모델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가구의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0.150, p<.001$),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14, p<.001$). 한편, 노인가구의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p>.05$), 노인가구의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age of Income Security Service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IV	B	SE	t	p	F(R ²)
Income guarantee	-0.150	.041	-3.672***	<.001	
Social support	0.214	.015	14.254***	<.001	77.470*** (.255)
Income guarantee ×Social support	0.006	.046	0.138	.890	

*** $p<.001$

4.4.2 노인가구의 건강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노인가구의 건강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0.212, p<.05$),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17, p<.001). 한편, 노인가구의 건강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p>.05), 노인가구의 건강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age of Health Insurance Service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IV	B	SE	t	p	F(R ²)
Health insurance	-0.212	.086	-2.473*	.014	
Social support	0.217	.015	14.653***	<.001	74.173*** (.247)
Health insurance ×Social support	0.013	.090	0.147	.883	

* p<.05, *** p<.001

4.4.3 노인가구의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노인가구의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54, p<.001),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16, p<.001). 한편, 노인가구의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0.068, p<.05), 노인가구의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노인가구의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age of Home Welfare Service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IV	B	SE	t	p	F(R ²)
Home welfare	-0.154	.036	-4.332***	<.001	
Social support	0.216	.015	14.548***	<.001	81.038*** (.263)
Home welfare ×Social support	-0.068	.032	-2.133*	.033	

* p<.05, *** p<.001

4.4.4 노인가구의 사회 참여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노인가구의 사회 참여 서비스 이용 여부(B=0.114, p<.01)와 사회적 지지(B=0.216, p<.001)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가구의 사회 참여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p>.05), 노인가구의 사회 참여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age of Social Participation Service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IV	B	SE	t	p	F(R ²)
Home welfare	0.114	.038	3.053**	.002	
Social support	0.216	.015	14.395***	<.001	77.657*** (.255)
Home welfare ×Social support	0.063	.040	1.593	.112	

** p<.01, *** p<.001

5. 결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이용이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조명하고 장애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여 장애노인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684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노인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이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서비스 이용이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득보장 서비스 참여로 설정한 기초연금 수준은 장애연금을 수령할 경우 낮아지게 된다. 즉,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 수준으로 인해 소득보장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고, 경제적 상황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장 서비스와 재가 복지 서비스 또한 건강 상태가 열악할수록 제공되는 수준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회 참여 서비스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참여 서비스는 장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고령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은 노인들은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사회교육 서비스를 통해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이 가능하며, 단체 활동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은 노인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명일 외[24]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은선과 송순만[1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장애 노인과 비장애 노인 모두 사회서비스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인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 노인의 사회적 지지에 재가 복지 서비스와 사회 참여 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김향아[21]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회 참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함철호[49]의 연구와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에 한계가 있는 장애 노인에게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가족들의 돌봄을 충분히 받는 장애 노인은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참여 서비스는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교육 서비스 등에 참여하는 장애 노인들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됨으로 인해[40]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선행연구[48,13]와 대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친지에게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장애 노인들에게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장애 노인은 전생애 동안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41] 가족과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생애 지속적으로 제공된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50].

특히 장애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돌봄에 대한 공백을 대체할 수 있으며[32], 가족과 친구, 이웃 등의 지인들이 제공하는 지지가 심리적 건강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39]. 본 연구에서는 장애 노인의 사회적 지지에 재가 복지 서비스와 사회 참여 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회 참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소득보장 서비스, 건강보장 서비스, 재가 복지 서비스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으며, 사회 참여 서비스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노인에 대한 차별화된 사회서비스 보장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노인에 대한 정책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의 노인복지 대상과 장애인복지 대상으로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노인복지 영역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소외되고 있다[47]. 따라서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두 영역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노인 대상의 정책으로 도우미과견사업, 재가복지서비스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끼리 연계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

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통합프로그램 및 대상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노인에게 있어서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고[11], 빈곤과 자살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1,12].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이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인 가족지지, 배우자 지지, 자녀와의 지지가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장애인에게는 가족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에 관련한 가족인식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3세대 워크숍, 장애인들을 가진 가족들의 정기모임을 통해 가족 지지를 높여 주어야 한다. 또한 주변 이웃 지지, 복지관 등 기관을 통한 지지 등 사회적 지원으로 장애노인의 사회참여를 돕는 노인들의 말벗 노노 케어, 장애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2차 가공하여 다양한 제도의 접근과 이용 여부에 대한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중 공적 지지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 노인의 현실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상태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H. C. Chang(2017), The Study on Multidimensionality and Influence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 Focused o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2] Statistics Office(2021), Elderly Population Ratio.
- [3] K. E. Kim(2016), Effect of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recipient of basic pension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7), Investigation of the disabled.
- [5] I. A. Kim(2020), Factors that Influence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among Disabled Elderly: Compared with Older Disabled People and Disabled Adults from Aging,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2020. Vol. 28, No. 4, pp. 45-55.
- [6] Song, Kee. Young(2017),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Successful Aging of Elderly with Disability: Comparison of Elderly without disability ,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22, pp. 137-160.
- [7] Neugarten. D. Havighurst, R. & Tobin,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8] S. M. Lee(2021), The Effect of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Economic Activities and Income level on the Quality of Life and Subjective Happiness :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University of Seoul.
- [9] J. E. Hye · Y. M. Sook(2018), Social Support, Depression, Self-esteem Influences on Life Satisfaction of Disability in Aging,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8, Vol. 38, No. 3, 645-666.
- [10] O. H Kyung·J. D. Jin(2010), A study of determinant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person,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4, No.3.
- [11] H. G .An & O .M. Baik(2021), The Effect of Residential Environment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A corporation Asian Cultural Institute , Vol, 12, No. 4.
- [12] M. Y. Im(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Skills,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 [13] E. K. Kang(2013). The Effect of the Emotion Regulation Abili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
- [14] S. B. Kim· S. S. Choi· Y. J. Song(2019),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Victims of Disaster, *Elderly Welfare Research*, 74(2), 9-34.
- [15] E. S. An·S. M. Song (2017), The Effects of Welfare Services Experience by the Low-Income Seniors on the Satisfaction of Life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onflicts and Depres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Oct; 15(10): 9-18.
- [16] J. Y. Kim(2019), The Effect of Poverty Status and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9(3), 2019, 148-178.
- [17] E. N. Kang.(2017), Types of Neighborhood Environments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7, No. 3, 669~686.
- [18] S. J. Paik· C. S. Shin· S. W. Ahn· M. S. Kang(201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Life Satisfaction of Person with Hearing Impairments,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Vol. 2018 No. 1.
- [19] H. N. Lee· E. K. Shin· H. I. Shin (2014). A Study on the Occupation and Health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tilization of Whodas 2.0.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24, No. 1(2014), pp. 5-28.
- [20] Y. M. Lee(2013), The Study on the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Elderly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2, 35-57.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nam University.
- [21] H. A Kim·J. S. Lee(2020),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ervice use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 34, pp. 23-44.
- [22]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rt3, Abs.4.
- [23] C, M, Yun·J, H, Park(2020),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Modulate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5(1), 2020.3, 35-64(30 pages)
- [24] M. I. Kim·E. J Lee· J. P. Kim(2019), The Effect of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0, 2, pp, 141-161.
- [25] Y. C. Kim(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Before and After the Community Social Services: Focus on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23(1), 417-435.
- [26] U. S. Yang(2019), Did Social Service Provision Lead to Improve Quality of Life? :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rvice Voucher and Quality of Life , Social science research, 30(3), 3-24.
- [27]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pp.300-314.
- [28] Worobey. J. L & Angel. R. J. (1990), Functional capacity and living arrangements of unmarried elderly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45(3), 95-101.
- [29] J. U. Lee(201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Housing Environment of the Elderly Living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Focusing on the elderly living alone in Daeje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30] E. K. Yoon(2011), Potential Mediating Effects of Different Response Types on Coping of Old People's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with Their Quality of Life,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31] H. H. Shin(2017), th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relations, activities of daily living, cognitive func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the korean elderl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
- [32] H. M. Kim(2013), The Effect of the Self-Control on the Lonelines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 [33] J. M. Lee(2021), The Effec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 The Moder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Families,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 [34] Y. B. Kim·J. S. Park(2004), The Family Network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 South Korea ,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4. Vol. 24, No. 1. 169~185.
- [35] J. G. Lim(2013),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38 2013, pp. 217-240.
- [36] S. H. Jang·C. S. Kim·M. R. Kim(2008), An Effect the Social Support on th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4(2), 39-46.
- [37] M. S. Koo & E. M. Baek(2019), Analyze Influence Which Psychological State of the Disabled Has 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After Retirement,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33 pp 37-62.
- [38] M, S, Koo·E, M, Baek(2019), Analyze Influence Which Psychological State op the Disabled Has 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after Retirement, Korea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33, pp. 37-62.
- [39] N. H. Kim· S. s. Cho (2019). The effect of depression on suicide inten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Social Welfare Education, 46, 123-146.
- [40] Y. M. Jang(2012).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job program and social capital. Welfare Counseling Education Research, 1(1), 121-148.
- [41] K. A. Shin(2020), Care and future expectations of families with severe disabilities, Industrial Convergence Research, 18(6), 139-146.
- [42] H, J, Lee(2020), Life Satis Faction and deression among the oldest-old: The mediating effect of gerotranscendenc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5(3) 9-29
- [43] S, I, Choi·S, H, Roh·E, J, Lee(2013).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Supporting Measures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in Middle and Old Age, Korea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Korea

- [44] Kennedy, J. (2002). Aging and Disability-The Advocacy and Research Agendas: An Interview with Judy Heumann.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2(4), 280-283.
- [45] S, W, Lee(2019), Social Service: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 no. 5: 59-72.
- [46] D, B, KIM (2009),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on Older Adults'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 A Mediating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0(1), 63-86.
- [47] S, H, Kim(2016).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rehabilitation welfare*, 20(3), 17-43.
- [48] Y, J, Lee-T, H, Kim(1999).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tress of the Elderly who lives alon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9(3), 79-93.
- [49] C, H, Ham(1997).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Home-based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7(1), 139-159.
- [50] E, H, Jung-M, S, Yoon(2018). Social Support, Depression, Self-esteem Influences on Life Satisfaction of Disability in Aging,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8(3), 645-666.

임 정 미(Jung-Mi Lim)

[장학원]



- 2015년 2월 :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20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사회복지 정책, 실천
- E-Mail : ljiy990909@naver.com

김 지 영(Kim-ji young)

[장학원]



- 2016년 2월 :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8년 3월 ~ 현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사회복지 정책, 실천
- E-Mail : ji5430@hanmail.net